

# Ἡ Ἰστορία τῆς Κτίσεως ἡμετέρας ἑξ ἑξῆς ἡμετέρας Κτίσεως ἡμετέρας

© 2024 Kenneth Mathew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창조, 창세기 1.1~2.3장입니다.

2부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로 오늘의 다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생성 계정의 구조입니다.

둘째, '날'이라는 키워드의 해석이다.

셋째, 인류를 위한 창조와 축복이다.

넷째, 안식일.

다섯째, 신학.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생성 계정의 구조입니다. 글썄요, 계정을 만들 때 6일 + 1일 구조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매우 분명할 것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창조의 날이 6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일곱째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여섯째 날이 끝나서 창조가 완성되는 안식의 날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6+1 배열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1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관해서는 문학적 용어로 메리즘, 비유적 표현, 메리즘, 메리즘으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메리즘은 전체성 또는 포함성을 나타내는 반대되는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성명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 즉 조직되고 창조된 질서가 나올 물질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첫 번째 창조 연설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므로 가볍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2절을 다소 소개적이지만 창조의 첫날을 위한 배경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세 가지 표현, 즉 묘사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태가 없다고 말할 때, 여기서는 그것이 무질서한 방식으로 창조되지 않고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된 생명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는 깊은 곳, 즉 물, 깊은 곳의 표면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이라 그는 물 위에 운행하시며 경계를 이루셨느니라

즉, 형태가 없고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 불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3절에 나오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없는 것이 있는 곳에 형태를 가져오는 데 사흘이 걸립니다. 그리하여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그 3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둠과 분리된 빛이 있습니다. 분리는 계정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통해 조직과 디자인이 생기고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둘째 날에는 물과 관련된 분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공으로 묘사된 것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공간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의 대기 분리일 것입니다.

위의 물은 우리가 대기의 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래의 물은 땅의 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6절부터 8절까지에서 하늘과 물이 나뉘는 것을 봅니다. 셋째 날에는 9절부터 13절까지에서 땅의 물과 마른 땅이 나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땅을 땅이라 하고(10절)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는 분리입니다. 이제 땅이 기능하는 한 가지 방식은 땅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땅이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셋째날에는 두 가지 창조물이 있습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서 이것이 12절에서 중요한데, 땅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땅은 식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땅에 식물을 생산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형태가 없고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반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직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고, 이제 초목을 생산하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틀 동안에는 하나의 생성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셋째 날에는 두 가지 생성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4, 5, 6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4절, 4, 5, 6일이 1, 2, 3일과 평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묘사된 공허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생산하십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제가 넷째 날의 생명에 관해 말할 때입니다. 그것은 14절부터 19절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궁창에 있는 빛을 지닌 물체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낮과 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기와 날과 연한을 표시하는 표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능입니다. 그들이 기능하는 방식은 지구와 궁극적으로 인류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태양과 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 언어로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 즉 더 큰 빛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작은 빛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발광체가 있는 궁창의 공허함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지만 발광체는 살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신체의 움직임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 날, 다섯째 날이 되니 여기에 물과 하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둘째 날에 발생한 하늘과 물의 분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생물, 즉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창조 기록이 두 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땅과 바다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육지 동물, 다양한 종류의 가축, 땅에서 기어다니는 생물의 생산과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열된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6일차에 두 번째 생성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땅 위에 있고 이것이 인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창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이다.

그리고 물론 창조 이야기를 읽거나 창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이든 일곱째 달이든 일곱째 해이든 일곱의 배수이든 49년이 되고 그 다음은 희년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이 염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창조와 날이 아닙니다.

이는 개막 6일차, 즉 1일차부터 6일차까지로 오히려 구별된다. 따라서 이는 생성 계정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장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두 번째 창조 기록인데, 우리가 창조 기록을 2장 3절에서 끝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끝내고자 하는 이유는 4절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툴레도 표현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것이 세대입니다. 이것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Yarod에서 온 툴레도는 세대입니다. 또는 눈치채셨다면 아마도 이 계정이 더 나은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내용은 두 번째 창조 계정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세 번째 세션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 것은 2장에 이어지는 두 번째 창조 기록이 비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의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범주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2장의 창조 이야기에 이르게 되면,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있는 동산의 창조가 있는 여섯째 날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동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끝난다. 이제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1장 1절의 메아리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느니라. 나는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멈춰서 반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4a에서는 하늘과 땅을 읽는 반면, 이제 4b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주목하세요. 땅과 하늘. 반전은 아마도 이제 지상의 인간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단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섯째 날 창조의 특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2장은 창조에 대해 주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완하는 특별한 강조점을 주제적으로 배열한 만큼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יום(yom)**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yom)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대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란 이것이 정상적인 태양일인지, 우리가 24시간 하루라고 부르는 날인지, 또는 하루가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대 과학, 특히 지질학의 발전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 지구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יום(yom)**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방식, 비유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여섯 창조일에 우리가 태양일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글쎄, 사용되는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태양일로 해석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각 옛새가 끝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숫자의 언어로 하루가 나타나는 곳마다, 이 경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태양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יום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 비유적인 개념에 있을 것입니다. 즉 하루는 긴 시간이 될 것이며 시간이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자. 그래서 지질학적 역사와 창조 6일을 긴밀하게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다른 사람들은 지질학적 역사에서 논리적인 발전이 있는 것처럼 이 6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느슨한 연결, 일부 진행, 논리적 진행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였으며, 이 경우에 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자체 내에서 태양일이 전혀 의도된 경우 태양일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는 나와 함께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יום**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날을 부르셨습니다.

밤이 뒤따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아마도 전체 태양 기간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예는 2장 4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2장 4절의 4B절에서는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낮'이라고 읽습니다. 많은 번역판에서는 단순히 '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로 번역했지만, 그것은 '낮'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은 창조 전체, 즉 6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또는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더 긴 기간의 지질학적 역사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억 년의 세월에 대해, 특히 여섯째 날의 인간 생명의 역사에 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이야기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해석할 때 창조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입장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록과 실제 물질적, 물리적, 지질학적, 인류 역사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 즉 11번 발생한 세대를 하나로 묶는 데 사용되는 족보적 언어의 요구 사항은 창조 이야기와 초기 인류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족보가 역사적이고, 족장 기록이 자신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묘사하는 것처럼, 머리글로 사용되는 족보 언어는 저자가 원초적 또는 원시 역사와 족장적 역사가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교차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하루를 태양일로 삼거나 더 긴 기간을 언급하는 옵션에 관한 한, 나는 태양일과 반대되는 두 번째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주석적으로 나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아온 날이라는 단어의 유연성 때문일 뿐만 아니라 태양이 있을 때까지 날을 해석할 때 태양일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 없이 어떻게 태양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넷째 날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나는 이것이 2절에서 나타나는 어둠에서 3절에서 나타나는 빛으로의 진행을 묘사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며 이 패턴이 문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생성 계정을 6일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태양일, 24시간 하루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 장치로 봅니다. 이제 태양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추가로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즉 일곱째 날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심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장치가 없으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일곱째 날을 문자적인 날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자적인 날과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암시합니다. 즉, 일곱째 날은 창조의 6일 뒤에 오는 것이지만, 이는 일곱째 날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일곱째 날이 영적인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안식일인 안식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인 이유들로 인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스토리 이벤트가 아닌 실제 이벤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물질적, 물리적, 인간 세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 계정은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상학적 언어라고 부르는 의미에서 이야기됩니다. 현상학적 언어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언어와 달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일출과 일몰에 대한 언어를 사용할 때 상세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기상 전문가입니다.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묘사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지구 표면에 서서 이 모든 창조 사건을 관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적 창조와 축복을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독특한 창조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창조된 동물의 생명, 물의 생명, 궁창의 생명 또는 하늘의 생명이 있는 곳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그리고 동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에 관해서라면, 하나님은 실제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권적인 지위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저는 이러한 맥락과 2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토대로 그것이 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정체성으로서의 남성과 여성.

그럼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창조와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을 놓고 씨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형상과 유사성을 말할 때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르지만 둘 다 표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칩니다. 이미지는 아이들에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상과 유사성은 창세기 5장 1절과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형상과 유사성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시적 표현, 즉 반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둘 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질문에 대답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해 다소 논쟁이 있는 이유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 즉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저자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방식으로 고대 근동의 언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왕족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왕족의 후손도 당연히 왕의 아들 또는 왕 자신으로 식별될 왕족의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신의 아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왕이 실제로 신이고 호루스였거나,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에서는 왕이 반신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은 신도 아니고 반신도 아니고 오히려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왕이 여러 차례 땅을 정복할 때 돌기둥인 비석을 세웠는데, 여기서 왕은 땅을 정복하면서 다양한 전투를 묘사하고 심지어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돌기둥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나의 손자국이요, 나의 기둥이요, 내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내가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합니다. 즉, 그들은 파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6절의 언어 규칙을 볼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통치하거나 정복하는 것은 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부통령처럼 그들에게 파생된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다스리며, 그들이 땅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27절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서 찾은 것처럼 바로 거기서 멈춰 봅시다.

인간이라는 언어는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여러분은 인류를 의미하는 아담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적인 반전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인류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 자신의 형상이 뒤따를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반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평행 부분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은 A이고, 자신의 형상은 B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B와 일치할 것입니다. A 매칭이 될 것입니다. AB, B A. 왜 그렇죠? 글썄, 아마도 이미지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제, 27절의 세 번째 시적 표현은 27절에서 발견되는 인류, 인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그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인류를 위한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왕족이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히브리 신학, 히브리 사상, 히브리 관점에 있어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왕이실 뿐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왕과 왕족과 같이 파생된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땅의 창조물, 즉 그의 땅의 영역에 대하여.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전체 개념으로 돌아가서, 인간 본성, 자연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바로잡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새와 인간을 예로 들자면 본질적인 존재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당신의 본질, 당신의 본질적인 존재, 그리고 그것을 특징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새에게는 눈이 있고 인간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인간도 노래합니다. 하지만 새들은 일을 하고, 인간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들은 날 수 있지만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새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 즉 존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인류 안에서 공통된 본성, 공통된 본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유한 정체성, 즉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지성을 표현하는 사람,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나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 치매, 건강 장애로 인해 지능 표현을 상실한 사람, 또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치매 환자이든, 예를 들어 영구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본성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특별한 정체성을 지닌 인간, 특별한 인격을 지닌 인간, 인격을 가지면서도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각 사람과 독특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인격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인격은 하나님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를 갖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을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만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로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눈을 통해 읽을 때 그것이 어떻게 축하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물론 예배를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날이고, 일을 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따로 떼어 놓고, 집중 예배를 위해 따로 떼어 놓은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안식일에 들어가 이 축하의 날에 그분을 즐기도록 묵시적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피조물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언급한 안식일의 휴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삶, 그분의 안식일,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며, 그분의 창조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장의 시작 구절에 올 때, 나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은 고대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로마 세계에서요. 여기서 창조는 하나님 존재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산이 아니며, 발산이란 하나님과 창조물이 완전히 별개의 실체인지 여부는 그의 존재의 파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성한 창조물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마음 속에는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은 살아 있는 신성한 존재이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조가 자기 생성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조의 신들이 스스로 생성한 다음, 우주를 거주하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사 모티브로 생명이 있는 우주의 신들과 대립하는 혼돈의 신, 물의 신, 죽음의 신을 묘사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영웅신이 승리하고 그는 신들의 왕이 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없습니다. 그는 권위있게 말하고 모든 것이 행동합니다. 그랬고 그랬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과 깊은 곳처럼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창조자로서의 권위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신들에 의해 반대되는 전사 신이라는 모티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모티브는 출산이다. 여기에는 남성 신들의 탄생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시의 전사 신들과 여성 신들, 여신들이 함께 모여 성적인 관계를 맺고, 결합하여 신을 낳고, 그 다음 신들이 차례로 창조 질서를 낳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창조 기록의 맥락에서 읽을 때 창조 기록의 가장 놀라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반문화적이에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고대인들의 세계관과는 극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마 세계에 관해서라면, 모든 철학 학파의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들을 역사상의 시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 개인의 역사, 인간의 역사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나와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이나 다른 인간, 즉 나와 당신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의 경우는 '나-그것'입니다.

신은 정말로 순수한 생각의 행위이며, 인격적인 존재와는 반대되는 순수한 생각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는 극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세션을 위해 함께 모이면 저는 2장 4절의 정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1장과 2장을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묘사되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연합 안에서 하나이시지만 그 연합 안에는 복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3회차는 정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장 4절부터 3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에 대해 가르치는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창조, 창세기 1.1~2.3장입니다.